

청산도 밤마실 인기...비대면 섬 관광 가능성 봤다

등불야행 등 주민들이 기획·운영
반딧불이·은하수 촬영 출사도
사진작가 180명 등 1285명 참여
완도군 "코로나 침체 딛고 새 활력"



지난 19~20일 완도 청산도에서 열린 밤마실 행사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청산도 등불 야행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등불 야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운영한 '청산도 밤마실' 행사가 체류 관광객 유치 등 새로운 '섬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완도군은 청산도 민박업협회인 '청산휴'의 주관으로 지난 19~20일 열린 청산도 밤마실 행사가 사진작가 180여명 등 1285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청산도 밤마실은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입도 통제가 실시되며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경제 상황마저 나빠지자 청산도 주민이 건의해 '여름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개설했다.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청산도 등불 야행, 달빛 포토존, 갯벌 소리쉼터, 다랭이는 배미수 맞히기 등 8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전국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청단풍길과 범바위 주변에서 반딧불이와 은하수를 촬영하는 출사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완도군은 이번에 참여한 사진작가들로부터 반딧불이와 은하수 사진을 확보해 각종 행사 때 전시회를 개최하고 청정완도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

는 방침이다. 서편제길에는 밤마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임시 경관조명을 설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걸을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였다.

완도군은 또 소득뿐만 아니라 경관작물로서의 효과를 입증한 '코끼리마늘' 재배 면적을 확대해

관광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 밤마실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의 기획해 운영한 행사"라며 "비대면 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콘텐츠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안좌 산두방조제 침수 예방 농어촌공사 98억 투입 배수 개선



굴 겁데기에 막혀 상습 침수 피해를 유발하는 신안군 안좌면 산두방조제.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지사장 최완일)는 해마다 집중호우 때 바닷물 상승으로 상습적인 피해를 입는 신안군 안좌면 산두방조제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산두지구에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 배수장 1곳을 포함한 배수문, 배수로 등 주요 배수시설을 정비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의 농경지 침수를 막아 영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두방조제 해안은 지난 2018년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된 굴 겁데기 수백t이 떠밀려와 배수문을 막아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폐가방지용 방사제를 설치해 침수 피해 원인인 굴 겁데기를 제거했다. 그러나 배수문을 통한 자연 배출이 되지 않아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 개선 사업을 꾸준히 건의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수개선 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도시 소비자 초청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열어

홍감자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행사

진도군은 도시 소비자 40여명을 초청해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홍감자 구출 대작전'이라는 주제로 군내면 송산리 진도농부 농장에서 열린 행사는 홍감자 수확 체험, 레인보우 비빔밥·홍감자 샐러드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진도농부 농장은 홍감자, 고추, 배추 등 제철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한다. 유기농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로 진도군 농산물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생산자들이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군은 도시 소비자 40여명을 초청해 군내면 송산리 진도농부 농장에서 팜파티를 열었다. <진도군 제공>

영광군의원들 고통 분담...석달치 급여 30% 기부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등 의원 8명은 지난 22일 3월부터 6월까지 석달치 급여의 30%인 1417만여원을 모아 '영광공간'에 기부했다.<사진>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다. 강 의장은 "의원 전원이 동참한 이번 기부가 영광군 복지 사각지대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의 삶이 정상화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 김준성 영광군수도 지난 5월 재난지원금 80만원 전액을 기부한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급여의 30%를 기탁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희망이 모이는 '영광공간'은 2018년 1월 영광군과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협약을 맺어 구성된 영광군 공식 연합 모금기구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kwangju.co.kr

중국 밀항 후 국내 밀입국 시도 목포해경, 진도 해상서 2명 검거

목포해경이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다시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한 2명을 검거했다.

2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박모(60)씨와 허모(4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박씨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소형 선외기 보트를 탄 채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께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대형선박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을 동원해 2시간가량 추격해 박씨를 먼저 검거했다. 허씨는 육상으로 달아났다가 오후 6시20분께 하조도 산속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에게 붙잡혔다.

박씨는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이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 조 주택 설계 · 시 공 전문 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